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박*순
파견국가	영국	파견도시	Huddersfield
파견대학	University of Huddersfield	파견기간	2014.9 – 2015.7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허더스 필드대학은 영국 West Yorkshire 지방에 위치해 있어 영국 영토 중앙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행 다니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구요 날씨도 비가 자주 오는 영국 이지만 날씨도 겨울이나 여름에 그리 춥지않고 덥지도 않은 온화한 날씨입니다. 허더스 필드는 또한 맨체스터 리즈 등 대도시 사이에 있어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학교 입니다., 학교 규모는 순천향대 보다는 작지만 학교건물 수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투자하는 학교라 시설 교육 환경이 좋은 학교 입니다. 또한, 교육수준은 Yorkshire 지방에서 1위를 할 만큼 수준 높은 교육을 경험하실 수 있고 한국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과목과 지식을 배우실 수 있을 거라 확신 합니다. 또한 영국 대학교는 Mark에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어서 과목을 패스 하기 위해서는 깊은 지식과 상당한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야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른 영국 대학교와는 다르게 국제학생이 많은 학교 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특히 국제학생에 대한 이벤트 등을 매주 열어 자신만 잘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2014-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저는 6과목을 10개월 과정으로 대학 생활을 했는데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reativity and Innovation 2. Global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3. Creating and Leading Enterprise 4.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5. Professional English 6. Chinese.

2015-1학기
수업

1. Creativity and Innovation 이란 과목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을 창업하고 생각해 보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내용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기업운영, 창업등을 고려해 보고 자신이 기업가가 된다면 어떤 기업가가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제는 조별과제와 개인 과제가 있었는데 조별 과제는 조원 6명이 창의적인 제품을 발명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 계획 에세이 6000자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또, 개인과제는 자신의 '기업가'의 대한 가능성과 장래를 기업가 이론을 적용시키는 2500자 레포트 작성이었다. 이 과목의 교수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젊은 여자 교수님이 셧고, 경력도 화려하셔서 나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고 배울 것 이 많았던 시간 이었다.

2. Global Supply 과목은 한국에서 내가 전공하던 국제통상학과에서 배웠던 국제 물류에 대한 과목이었는데, 내가 한국에서 배웠던 내용을 영어로 복습한다는 느낌이 강했다. 물론 한국에서 배우지 않았던 더 최신 자료들을 배우기도 했다. 과제는 또한 개인과제와 시험이 있었는데 중간에 조별과제(Mark 에는 포함이 안된)도 있었다. 첫번째 개인 과제는 Apple 회사의 Supply Chain Management 에 대한 논문을 읽고 교수님이 주신 문제에 대해 서술하는 2500자 에세이 였다. 시험은 5월달 시험기간에 보았는데 3시간 서술형 시험 문제로 1년동안 여태껏 배운 수업내용에서 6문제가 나오고 그 중 3개를 자신이 골라 서술하는 형식의 시험이 이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영국 학교는 서술형과 옛세이 시험이 주로 이루어 졌습니다.

3. Creating and Leading Enterprise 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과목으로 경영 방식과 기업가가 가져야 할 특성 등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 이었습니다. 교수님은 Kong Kai 라는 분으로 국적은 영국이고 어렸을 때 홍콩에서 이민을 오신 분이었습니다. 수업 분위기는 교수님덕에 재미 있었고 유용한 시간 이었습니다. 과제는 조별과제와 개인 과제로 나뉘었는데, 조별과제는 조원 6명이 기업가가 되어 창의적 기업을 창조하는 것이 었고 그에 대한 발표와 옛세이 작성이 있었습니다. 개인과제는 2500자 옛세이로 1년동안 배운 후 자신이 얼마나 기업가 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었나를 되돌아보는 옛세이 작성이 었습니다.

4.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이 과목은 Business School 이 아닌 Human Resources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으로 영어영문 학과를 복수 전공 하는 나로서는 영어과목에 대한 학점을 채우기 위해 교수님께 따로 부탁해서 신청을 하였다. 이 과목은 국제화 시대의 언어 사용에

대한 주제 였는데, 때론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지식을 요구한 과목이다. 국제화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충돌하여 이에 따른 언어 방식과 문화차이 등에 대해서 배웠다. 과제는 개인과제 2개 가 있었는데 이 과목 또한 1000자, 2000자 에세이 였다. 1000자 에세이는 자신의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경험에 대해 쓰는 것이 주제 였는데 나는 외국인으로써 영국에 와서 느꼈던 언어적 문화차이와 특징에 대하여 서술 하였다. 두번째 과제는 수업시간 동안 배웠던 주제 하나를 고르고 그에 따른 이론등을 책이나 Journal Article 에 있는 이론등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레포트 작성 이었다.

5. Professional English 는 학교 정규수업 별개의 과목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English 수업으로 에세이는 어떻게 쓰는지, 포스터는 어떻게 만드는지 또한 표절을 어떻게 피하는지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차이등을 배웠다. 이 과목 또한 나에게는 유용한 과목으로 처음 영국에와서 영어를 사용하는 나에게는 더 없이 좋은 과목 이었다. 과제는 여러 과제가 있었는데 Writing, Speaking, Listening 이 있었고, Writing은 Poster Speaking 발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서술하는 과제 이고 Speaking은 Poster 발표 였는데 주제는 자신의 전공에 관련된 주제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발표 였다. Listening은 IELTS시험에 관련된 시험을 보았는데 TOEFL을 공부한 나로써는 시험 스타일이 달라 약간 당황 했지만 상대적으로 TOEFL이 더 어려워 쉽게 해결 할 수 있었다.

6. Chinese 수업 또한 별개의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 수업을 제공 하였는데 나는 전에 중국어를 조금 배운 적이 있어 Chinese 수업을 선택했고, 유용하고 재미있었던 시간 이었다. 시험은 Professional English와 마찬가지로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 으로 구성되었는데 매번 시험을 보는 형태로 조금은 까다로웠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Pass 할 수 있는 과목이었다.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은 내 담당자가 일을 그만둔 관계로 처음 영국에 왔을 때 혼란이 있었으며, 오리엔테이션 또한 다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속한 친구들과 같이 참여를 하였다. 영국 학교는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이 따로 없으며 자신이 매주 마다 열리는 학교 이벤트나 Society 같은 곳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p> <p>매주 열리는 이벤트나 Society를 잘 활용하면 쉽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Badminton Society에 참가하여 영국인 친구들과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영국 날씨는 소문 대로 비가 자주오며 어떤 날은 일주일 내내 비바람을 동반하는 날씨가 있었다. 하지만 여름이나 겨울이 그리 춥지도 않고 1년 내내 기후 차이가 별로 없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영국은 미국과는 다르게 총기소지나 범죄, 소매치기 등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지만 밤에는 조금 주의해야 하며, 가끔 지역신문에 범죄에 관한 기사가 나오며 자신만 조금 주의 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나는 학교 기숙사 Ashenhurst House를 선택 하였는데 학교에서 도보20분 거리에 위치하며 언덕에 위치하여 걸어가기에 조금 힘들지만 적응만 된다면 쉽게 갈 수 있고 버스카드를 사면 무제한으로 제한된 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다. 기숙사는 8인이 2개의 욕실,화장실 그리고 하나의 주방기구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숲속에 위치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친구 사귀기가 쉽고 취사가 가능하여 자신이 원하는 만큼 요리가 가능하다.</p> <p>하지만, 화장실이나 욕조등을 공유하여 House mate를 잘 못 만나면 고생할 수 가 있다.</p> <p>이 기숙사 말고 여러 개의 기숙사가 있는데, 아마 영국현지에 도착하고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 자취방도 많으니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 같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input type="checkbox"/>) 학교식당 개별이용 (<input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p> <p>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직접 요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영국음식은 정말 맛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관계로 중국슈퍼에 가서 한국식품재료들을 사서 주로 요리를 하거나 주변에 중국음식점이나 패스트 푸드점 이탈리아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끼니를 해결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걸어다니거나 버스를 탔다. 주요 도시 이동은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는데 기차요금이 비싼대신 편하며, Young Person Card 16세~25세 까지 적용되는 카드를 40파운드에 구입하면 매번 기차표를 살때마다 20프로 할인 된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Round ticket – 150만원 정도.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없음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영국 학생 비자를 신청하면 무료이다.
숙소	숙소 1년에 500만원 정도.	
식비	한달에 40-50만원 정도	
교통비	맨체스터,리즈기차비 왕복 1-2만원	
책값	필요없다.	도서관이나 프린트물 제공.
기타1	유럽여행.	
기타2		
합계	1000만원 이상.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출국 전 준비사항은 물론 영국영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에 영국와서 가장 놀랐던 것이 바로 현지인과의 대화였는데요, 저는 한국에 생활 할 때 주로 글로벌 빌리지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외국인 친구들과의 대화가 문제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 도착 한 뒤 영국발음과 표현이 미국인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BBC 방송들을 청취하고 매일매일 공부하려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인 친구들과 친해지려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야 친해 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영국대학으로 교환학생이 되신다면 놓칠 수 없는 것 또한 유럽 여행인데요. 영국에서 유럽여행 갈 시에 비행기 값이 정말 쌉니다. 잘 구하면 왕복 10만원 이하 티켓도 많구요, 다만 주의 할 것이 여행계획을 미리 짜놓으면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국시에 짐 많이 챙기실 필요 없습니다. 웬만한 물품들은 현지에서 다 구매 가능하구요 몇 가지 물품은 오히려 한국보다 싼 경우가 있으니 영국 물가가 비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짐은 최소한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핸드폰 개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영국에서 심카드만 구입하시면 전화 개통이 가능하고, 한국 통신사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잉글랜드 수도인 런던으로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MEGABUS라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기차를 타셔도 되는데 기차값이 왕복 100파운드가 넘기 때문에 한국돈으로 거의 20만원 가량 됩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Megabus 를 이용하시면 10파운드 안팎으로 이용가능 하니 참고 하시구요.

또한 처음에 대학교에 오시면 친구 사귀기 힘들실 텐데, 열린 마음으로 지내시고 대화를 많이 하시게 된다면 친구 사귀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국친구들에 따라 다르지만 몇몇 친구는 Asia에 관심있는 친구들도 있으며, 각종 Society에 가입하여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쉽게 친구 사귀실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금전 문제는 영국에서 처음 필요한 돈을 조금 가져가시고 현지 은행 Lloyds Bank 나 Balcrays등에 계좌를 신청하여 부모님에게 송금을 부탁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물론 계좌 신청은 무료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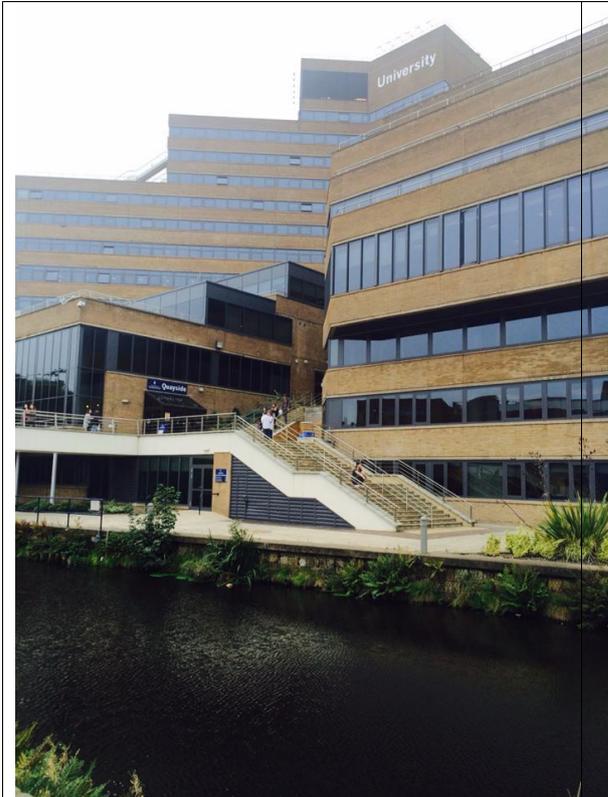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교환학생을 하면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 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 나라 쓰는 언어 '영어' 가 외 국제 표준 언어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내가 한국에서 생활 한 것 처럼 한국인의 문화를 가지고 생활 하는 대신 최대한 영국인 처럼 영국의 문화에 동화되어 생활 하는 것 이 나의 교환 학생 목표였고, 1년 생활해본 결과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 언어등을 조금 이해한 것 같다.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행복 했던 시간이었다.

이 상태로 한국에 돌아 간다면 또 다른 어려움과 Culture Shock를 경험 하겠지만 앞으로 잘 적응하고 생활하기를 나 자신 스스로를 믿고 행동해야겠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대학 본관 건물



대학 표지판과 거리모습



대학교 내부 Canal



Badminton Society 모습



시험기간 체육관 모습



맨체스터 사진